

연구논문

부모와 함께하는 가사노동과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 자녀의 성별과 가구 유형에 따른 차이

김경준* · 이윤석**

본 논문은 자녀의 가사노동 시간을 부모와 함께하는 가사노동과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으로 나눠 분석하여 가사노동 참여가 자녀에게 긍정적 경험인지 부정적 경험인지 유추해본다. 이를 위해 10분 단위로 어떤 행동을 누구와 함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2014년 생활조사 시간대 자료를 통해 가사노동을 부모와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하고, 성별과 가구유형이 자녀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가사노동을 수행할 때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보다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더 길다. 둘째,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은 남자 자녀보다 여자 자녀가 그리고 외벌이 가구 자녀보다 맞벌이 가구 자녀가 더 많이 수행한다. 셋째, 부모와 함께하는 가사노동은 여자 자녀와 남자 자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성별과 가구 유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사노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청소년, 가사노동, 부모와의 협력, 사회화, 생활시간조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대학원 석사과정(kyungjun96@uos.ac.kr).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yslee@uos.ac.kr), 교신저자.

I. 서론

최근 연구들은 자녀가 적지 않게 가사노동을 수행한다고 지적하고 있다(Álvarez & Miles-Touya 2012; Colge & Tasker 1982; Hu 2015). 부모의 가사노동 시간은 자녀로 인해 늘어나기도 하지만, 자녀의 도움으로 줄어들기도 한다. 기존 연구는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은 부모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가치관 형성을 통해 성인이 된 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주목하여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자녀에게 가사노동이 긍정적인 경험인지 부정적인 경험인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은 자녀에게 스트레스(Elkind 2001; Larson & Richards 1994), 시간 부족(Elkind 2001; Suransky 1982; Smith 1990), 부모와의 갈등(Barber 1994)이라는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교육적 사회화(Cogle & Tasker 1982; Goodnow 1988; Call 1996)와 가족과의 화목한 관계 형성(Penha-Lopes 2006) 등의 긍정적 영향도 준다. 가사노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응답자들을 추적하는 종단적(longitudinal) 자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연구가 매우 어렵다. 대신 본 연구는 상반된 영향을 구분하기 위해 가사노동을 부모와 함께 하는지 여부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부모와 함께 가사노동을 수행하게 되면 좀 더 즐겁게 하고(이윤석 2013), 능동적으로 하면서(두경자 1996) 자신의 일로 인식하게 되어 부모와 갈등하지 않을 수 있다. 부모와 같이 가사노동을 하면서 가사노동의 부정적 효과가 감소하고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와 함께 가사노동을 하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를 통해 가사노동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경험인지 긍정적인 경험인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성별(Cogle & Tasker 1982; Morrow 1996; Gager et al. 1999; Hofferth & Sandberg 2001)과 맞벌이 여부(Hedges & Barnett 1972; Propper 1972; Thrall, 1978; Timmer et al. 1985)는 자녀의 가사노동 차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변수이다. 두 변수에 대한 연구는 각 상황에서 자녀가 더 많이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전자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 차이를 부모가 가진 성역할 고정 관념에 의해 가사노동 수행을 불평등하게 요구받거나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배

구조를 자녀가 학습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한다. 어머니가 유급노동을 하면서 부족해진 가구 내 필요 가사노동 시간을 자녀가 채우게 된다는 후자의 시각은 부족해진 시간이 스트레스로 연결된다는 연구(Elkind 2001)와 연결된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가사노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경험인지 부정적인 경험인지 확인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성별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부모와 함께하는 가사노동과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 각각에 차이가 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여,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자녀에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목적으로 가사노동을 시킬 때는 주로 자녀와 함께 가사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자녀가 가사노동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격려하고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인격 형성과 가족 공동문화 창조, 능력 의식의 발달은 자녀의 성별이나 가구 상황과 무관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하는 가사노동은 자녀의 성별이나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의 경우 앞선 연구와 같이 가사노동이 여자의 일이라는 의식 속에서 여자 자녀에게 더 많이 부과하고, 맞벌이와 같이 부모가 가사노동을 덜 하게 되는 상황에서 더 많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연구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여자 자녀에게 가사노동을 더 많이 부과되는 상황과 어머니의 부족해진 가사노동 수행을 자녀가 대체하는 상황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성별 불평등과 가구의 경제 수준 차이라는 사회 구조적 요인이 가사노동 수행을 통해 자녀에게 부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간접적이지만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별과 가구 유형에 따라 더 많이 수행하게 되는 가사노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가사노동을 부모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구분하여 진행하기 위해 10분 간격으로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했는지를 알 수 있는 2014 생활시간조사의 ‘시간대’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가사노동을 부모와 같이한 가사노동과 부모와 같이하지 않은 가사노동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본 조사는 10세 이상의 가구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구 구성원 전체의 행위와 특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미응답 가구원과 만 10세 미만 가구원의 정보가 포함된 ‘가구정보’ 데이터를 사용하여 설문 대상 외 가구원의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선행연구

1. 자녀의 가사노동

과거에는 자녀를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자원이 아닌 가사노동을 만들어 내는 존재로 바라보았기 때문에(Morrow 1992), 자녀의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자녀가 가사노동에 기여한다는 것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Álvarez & Miles-Touya 2012; Manke et al. 1994; Hu 2015; 김경준·이윤석 2019). 한국의 경우 여자 자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 시간이 아버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 시간과 유사하게 나타날 정도로 가구 내 자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이 무시하지 못할 수준임을 알 수 있다(김경준·이윤석 2019).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하여 가구 내 가사노동 분배에 변화가 이뤄지고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을 연구해야 한다. 실제로 Lee et al(2003)은 기혼 여성의 취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혼 남성이 기여하는 가사노동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그 부분을 자녀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어린 시절 가사노동의 경험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자녀가 적지 않게 수행하고 있는 가사노동이 긍정적인 경험인지 부정적인 경험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러 연구에서 가사노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가사노동의 긍정적인 효과로 교육적 사회화(socialization)가 제시되고 있다(Cogle & Tasker 1982; Goodnow 1988).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은 능력 의식을 발달시키고(Call 1996), 가족과 화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Penha-Lopes 2006), 올바른 인격 형성과 발전을 이루며 가족 공동문화를 창조해 나가게 해준다(조미환 1996). 가사노동은 가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사노동을 통해 자녀는 가구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면서 책임감을 배울 수 있다.

반면 가사노동이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주로 스트레스(Elkind 2001; Larson & Richards 1994)가 지적되고 있다. 학업이 중요한 시기에 가사노동을 수행하면서 시간 부족(Elkind 2001; Suransky 1982; Smith 1990)의

문제를 겪기도 하고, 가사노동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로 인해 부모와의 갈등(Barber 1994)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녀는 가사노동을 부모의 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자신이 수행하게 되는 상황을 부당하게 인식하여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발생한다(Smetana, et al. 2003).

앞서 가사노동의 효과를 개념적으로 구분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함께 발생한다. 가령, 가사노동 수행에 있어서 자녀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능력 의식이 발달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완전히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종단연구를 통해 가사노동 수행이 자녀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두 방향의 효과는 동시에 발생하고 그 정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간접적인 구분을 위해 가사노동이 이뤄지는 맥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자녀가 가사노동에 대해 어떤 동기와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가사노동이 이뤄지는 맥락(context)에 따라 결정(Call et al. 1995)되기 때문이다. 가사노동은 업무, 책임, 보상, 의미 등 여러 측면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이는데(Goodnow & Lawrence 2001), 앞선 요소는 누구와 함께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10대 자녀는 온전히 혼자 일을 수행하기보다는 함께하는 사람이 시킨 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상을 통해 의미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와 함께하는지를 가사노동의 의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누구와 함께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Lee et al(2003)이 가사노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부모와 함께하는지' 여부를 가사노동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한다. 부모와 함께 가사노동을 수행하게 되면 가사노동의 부정적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사노동이 다른 노동과 구분되는 특징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진행된다는 것이고, 그런 특징이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Ross & Bird 1994). 부모와 함께 가사노동을 수행하게 되면 고립되지 않고 소통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적게 발생하고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부모 외의 사람과 함께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덜 발생할 수 있지만, 자녀에게 부모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부모와의 건강한 애착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Allen, et al. 1998)을 고려했을 때, 부모와 함께하

는 가사노동이 고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이들은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귀중한 기술을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Goodnow & Burns 1985), 책임감을 적게 느껴(Larson & Richards 1994) 부모와 갈등하게 된다. Barber(1994)는 가사노동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인식 차이를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와 가사노동을 함께 하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의 일을 부당하게 부담한다고 인식하게 되고, 부모와 갈등하게 된다. 반면에 Elder & Conger(2000)에서 말하듯,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사노동을 수행하게 되면 자녀는 집안일을 더 기꺼이 하게 되고 가족 구성원과 결속력을 느낄 수 있다. 부모와 함께 가사노동을 하게 되면 자녀가 가사노동을 가족이 함께해야 하는 가치 있는 일로 인식하게 되면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가사노동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커지기도 한다. 부모와 함께 가사노동을 수행할 경우 자녀에게 의견을 표현할 기회와 그 과정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울 수 있다(이윤석 2013). ‘자신의 일’이라는 인식은 가족 의무가 발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데(Warnton & Goodnow 1991), 부모와 같이하는 과정에서 자녀는 ‘자신의 일’이라고 인식하면서 가족의 의무를 배울 수 있다. 두경자(1996)는 자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은 기술이나 기능 축적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가사노동을 하는 부모 옆에서 놀이 삼아 즐겁게 참여하는 재미있고 능동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하면서 부모와 같이하는 가사노동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말한다. 조혜정(1999)도 부모가 함께 가사노동을 하면서 요령을 가르쳐주면 자녀가 스스로 일을 배우게 되면서 자아 존중감 발달과 아울러 중요한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한다고 말한다. 특히,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에 있어서 부모의 ‘즉각적인 보상’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Elder & Conger 2000), 가사노동을 부모와 함께 수행하는 것이 자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같이하는 가사노동 시간이 부모와 같이하지 않는 가사노동 시간보다 많을수록 자녀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3. 어떤 가사노동을 누가 더 많이 하는가

어떤 자녀에게 가사노동을 더 많이 부담시키는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가사노동이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어떤 자녀가 더 부당한 노동을 부담하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사노동 경험은 청소년 자녀에게 긍정적

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총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본 기존 연구로는 가사노동 참여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더 줄 수 있는 가사노동인 부모와 함께하는 가사노동과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더 줄 수 있는 가사노동인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이 이전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독립변수에 받는 영향을 각각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상황의 자녀가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 중 무엇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성별은 자녀의 가사노동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는 주요 요인이다. 많은 연구에서 여자 자녀가 남자 자녀보다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Cogle & Tasker 1982; Álvarez and Miles-Touya 2012; Manke et al. 1994; Morrow 1996; 두경자 1996; Gager et al. 1999; Hofferth & Sandberg 2001). 여전히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라는 시각이 존재하며, 부모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가사노동을 시키거나, 어머니의 가사노동 수행을 자녀가 모방학습(modeling)하면서 여자 자녀가 더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하게 된다(Hu 2015). 성별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 차이를, 부모가 가진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불평등하게 요구받거나 가사노동 분배구조를 자녀가 학습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가사노동 수행이 가지는 여러 긍정적 효과와 함께 고려했을 때,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사노동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사노동 각각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가구 유형은 특정 상황 속에서 노동자원(labor source)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변수이다. 많은 연구에서 아버지만 돈을 버는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에서 아이들의 가사노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Hedges & Barnett 1972; Propper 1972; Rubin 1983; Hu 2015; Thrall 1978; Cogle & Tasker 1982; Douthitt 1991; Timmer et al. 1985). Hedges & Barnett(1972)는 어머니가 직업을 갖게 되면 가사노동의 일부가 아버지가 아닌 자녀에게 옮겨진다고 주장한다. Bird & Ratcliff (1990)에서도 취업주부의 남편은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하지 않고, 자녀가 대체 노동력으로 사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Elkind(2001)는 더 나아가, 맞벌이 부부들은 십대 자녀에게 가사노동을 전가하고, 그 결과 자녀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긍정적 효과도 고려하여 부정적 경험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는 가구 내 가사노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동일하게 가사노동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부모가 가진 성역할 관점은 가사노동을 누구에게 더 많

이 부과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Hu(2015)의 연구에서는 여자 자녀는 맞벌이 가구에서 어머니의 가사노동 시간을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Blair(1992)는 어머니의 가사노동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자 자녀가 어머니의 자연 대체물로 가사노동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한다. 가구의 상황에 따라 여자 자녀가 부담하는 가사노동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많아지는 가사노동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것인지 긍정적인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녀가 노동 자원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여자 자녀의 부담 차이를 가사노동의 유형을 나눠 경험적으로 확인한다는 의의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통계청이 2014년 실시한 제4회 생활시간조사 데이터의 시간대 자료와 가구정보 자료를 사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을 시작으로 5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는 전국 규모의 조사이다. 조사 목적은 국민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다. 조사는 전국을 대표하는 가구에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만 10세 미만 가구원은 가구정보 자료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조사는 응답자가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시간일지에 자신이 한 행동을 일기 쓰듯이 2일 동안 직접 기입하는 방식(after-coded)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간대 자료는 10분 간격의 행위, 함께한 사람, 장소가 포함되어 있다. 행동은 9개의 대분류, 42개 중분류, 138개 소분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함께한 사람은 혼자, 배우자, 10세 미만 자녀, 그 외 자녀, 부모, 손자녀, 기타로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대표가구원에 대한 설문지에 한하여 만 10세 이상의 가구원 정보와 만 10세 미만 가구원 정도를 응답하게 하여, 미응답 가구원과 만 10세 미만 가구원의 정보를 가구정보 자료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는 부모와 함께 사는 중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맞벌이 가구인지 아버지만 돈을 버는 외벌이 가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가 매우 적은

‘어머니만 돈을 버는 외벌이 가구’와 ‘부모 둘 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를 제외하였고, 초등학생은 아직 부모를 대체하여 가사노동을 수행하기는 어리고, 고등학생에게는 대학 진학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사회 특성상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최종 표본은 893명이다. 손애리(2000)는 작성 요령이 숙지됨에 따라 2일 차에 작성된 응답이 더 성실하게 응답된다고 말하는데, 이를 참고하여 2일 차에 작성된 응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변수

1) 종속변수

가사노동은 각 시간대에 ‘가정관리’의 항목인 ‘음식 준비’, ‘가정용 섬유 및 신발 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 관리’, ‘애완 동·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 중 하나로 응답한 경우를 모두 더하였다. 즉, 24시간을 10분 간격으로 나눴을 때, 그중 가정관리 항목에 사용한 시간의 총합을 의미한다.

앞 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누구와 함께하는지에 따라 가사노동을 분류하였다. 이윤석(2013)은 어머니와 하는 경우와 아버지와 하는 경우를 나눠서 연구를 진행했지만, 조혜정(1999)과 두경자(1996)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부모와 같이하는 것 자체가 자녀가 받아들이는 가사노동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함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응답자는 10분 간격으로 한 행동의 종류와 같이 한 사람을 적었는데, 그중 부모와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모와 함께하는 가사노동과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으로 구분하였다.

2) 주요 독립변수

성별은 대표 가구원이 만 10세 이상 가구원의 정보를 입력한 부분에서, ‘성별’ 부분에 ‘남’으로 응답했는지 혹은 ‘여’로 응답했는지에 따라서 ‘남’으로 응답했을 때 1, ‘여’로 응답했을 때 0으로 코딩하였다.

가구 유형은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느냐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1시간보다 적게 일한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문항이지만, 시간조사가 실시된 특정 날짜에 일을 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행위 시간’을 사용하는 것보다 직업이 있는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아버지만 돈을 버는 외벌이 가구에서 어머니의 유급노동 시간 응답이 모두 0분인 것을 확인하였다. 어머니가 유급노동을 하는지에 따라 아버지만 돈을 버는 가구를 0, 맞벌이 가구를 1로 코딩하였다.

3) 통제변수

대한민국에서 중학생은 일반적으로 평일에 학교에 가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수행할 수 없는 시간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실제로 김정준·이윤석(2019)에서 주말인지 아닌지는 자녀의 가사노동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인 변수인 연령과 건강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연령이 높을 경우 수행할 수 있는 가사노동의 종류가 늘어나고 가구 내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더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Cogle & Tasker(1982)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보다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사노동은 주로 신체를 사용하여 이뤄진다는 점에서 건강상태가 나쁘면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매우 나쁨부터 매우 좋음까지 5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청소년기 자녀에게 부모의 특징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부모의 교육 기간이 자녀의 여성적 가사노동 수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Zill & Peterson 1982). 또한, Zick & Allen(1996)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 증가에 따른 여자 자녀의 가사노동 시간 감소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유급노동 시간은 부모가 수행할 수 있는 가사노동 시간과 직결된다. 부모가 유급노동을 많이 할수록 수행할 수 있는 가사노동의 양은 적어지고, 자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양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특성 중 교육수준과 연령, 그리고 유급노동 시간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형제자매의 수는 가구 내 가사노동의 총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 White & Brinkerhoff(1981)는 가족 수가 많아지면 가정 내 필요한 가사노동의 총량이 증가하고, 자녀의 가사노동 시간 증가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차성란(2001)은 자녀의 연령이 만 9~10세가 되면 장난감 치우기나 잠자리 정돈하기 등과 같은 간단한 가사노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형제자매의 연령에 따라 가사노동이 늘어나기만 하거나 나눠서 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0대 미만 형제자매의 수와 10대 형제자매의 수를 구분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3. 표본의 특징

표본의 특징은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단위: N, %)

	여자 자녀	남자 자녀	<i>t</i> -test or chi-square
연령 (만 나이)	13.46(0.97)	13.43(1.05)	
성역할에 대한 인식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			***
적극 찬성	7(1.54)	17(3.88)	
약간 찬성	49(10.77)	85(19.41)	
약간 반대	167(36.70)	226(51.60)	
적극 반대	232(50.99)	110(25.11)	
10대 형제자매			
없음	121(26.59)	129(29.45)	
하나	309(67.91)	286(65.30)	
둘	23(5.05)	23(5.25)	
셋	2(0.44)	0(0.00)	
10세 미만 형제자매			
없음	360(79.12)	367(83.79)	
하나	82(18.02)	63(14.38)	
둘	13(2.86)	8(1.83)	
어머니의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미만	15(3.30)	15(3.42)	
고등학교 졸업	220(48.35)	225(51.37)	
대학(2년) 졸업	106(23.30)	100(22.83)	
대학교(4년) 졸업 이상	114(25.05)	98(22.37)	
아버지의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미만	23(5.05)	15(3.42)	
고등학교 졸업	180(39.56)	203(46.35)	
대학(2년) 졸업	84(18.46)	72(16.44)	
대학교(4년) 졸업 이상	168(36.92)	148(33.79)	

어머니의 직업			
	직업 없음	164(36.04)	146(33.33)
	관리 및 전문직	91(20.00)	85(19.41)
	사무직	63(13.85)	56(13.01)
	서비스판매직	87(19.12)	92(21.00)
	육체노동직	59(10.99)	58(13.24)
아버지의 직업			
	직업 없음	0(0.00)	0(0.00)
	관리 및 전문직	86(18.90)	73(16.67)
	사무직	116(25.49)	104(23.74)
	서비스판매직	80(17.58)	75(17.12)
	육체노동직	173(38.02)	186(42.47)
어머니의 연령		42.47(3.55)	42.48(3.88)
아버지의 연령		45.25(3.85)	45.46(4.35)
어머니의 유급노동 시간		145.25(194.12)	157.65(201.74)
아버지의 유급노동 시간		300.11(220.68)	328.54(216.71) +
가구 유형			
	외벌이 가구 (아버지)	164(36.04)	148(33.79)
	맞벌이 가구	291(63.96)	290(66.21)
가구 소득		5.15(1.69)	5.01(1.66)
주말 여부			*
	평일	270(59.34)	289(65.98)
	주말	185(40.66)	149(34.02)
N		455	438

+ $p < .01$. * $p < .05$ ** $p < .01$ *** $p < .001$.

주: 유급노동 시간은 '주업' 응답과 '부업' 응답의 합으로 구성함.

부모의 교육수준은 '교육 정도'와 '수학 여부'를 함께 고려한 기준으로, '수학 여부'에 '졸업', '수료'로 응답한 경우 '교육 정도' 문항에 응답한 정도의 교육수준으로 보았고, '재학', '휴학', '중퇴'는 아직 해당 수준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교육 정도' 문항에 응답한 것보다 교육 수준이 한 단계 낮은 것으로 보았다. 부모의 직업 유형은 경제활동 상태에 일을 하였다고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직업 없음으

로 보았고, 직업 종류를 범주화하였다.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관리 및 전문직’으로 범주화하였고,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는 ‘서비스판매직’으로 범주화하였다.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는 ‘육체노동직’으로 범주화하였다.

표본으로 여자 자녀는 455명(50.95%), 남자 자녀는 438명(49.05%)이며, 성역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명제에 대해 여자 자녀는 ‘적극 반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50.99%), 남자 자녀는 ‘약간 반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51.60%)을 통해, 남자 자녀와 여자 자녀 모두 해당 명제에 반대하지만, 그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비교하면 어머니의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이 높고, 대학교 졸업 이상은 아버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3살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노동 시간은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약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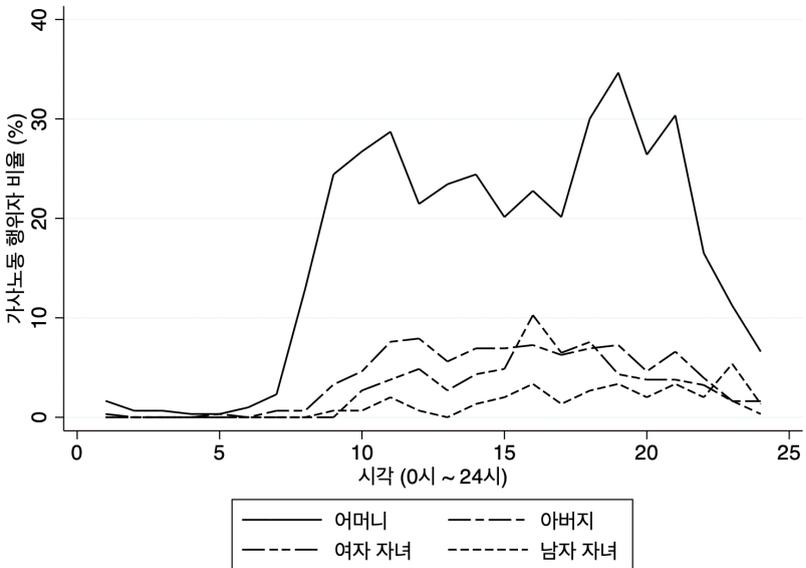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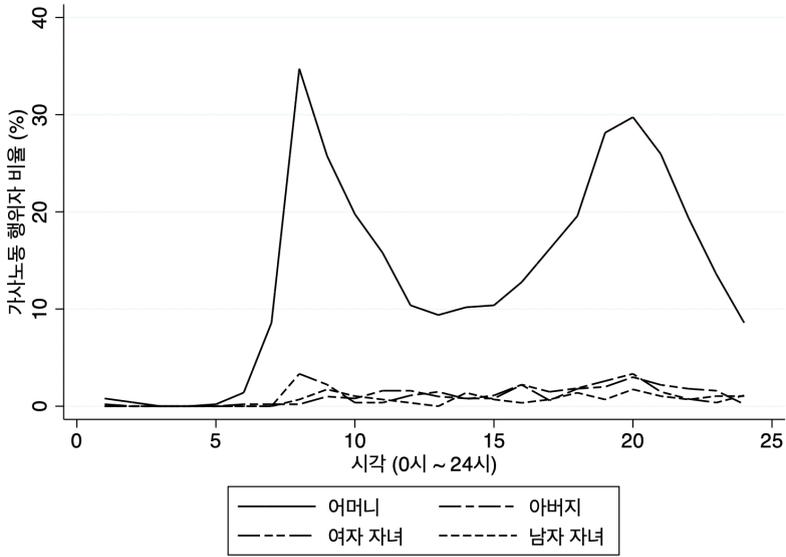
4. 분석방법

표본의 특징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t -test와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부모와 함께하는 가사노동과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이 성별에 따라 다른지는 t -test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통제변수와 주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토빗분석(tobit analysis)을 하였다. 종속 변수인 두 종류의 가사노동은 모두 0의 비율이 높고 음수값을 갖지 않는 좌측절단(left censored)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토빗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모든 분석은 STATA 15를 활용하였다.

IV. 결과

1. 자녀의 가사노동: 누구와 함께하는가

<그림 1>은 평일과 주말 시간대별 행위자 비율을 보여준다. 요일과 상관없이 어머니가 모든 시간대에서 행위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남



<그림 1> 시간대별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위: 평일, 아래: 주말)

주: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은 해당 시각에 가사노동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함.

자 자녀의 행위자 비율이 가장 낮으며, 여자 자녀와 일부 시간대에서 아버지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과 평일의 차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주말의 행위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 남자 자녀, 여자 자녀는 평일에 거의 가사노동을 하지 않고 대부분 주말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내 가사노동 분담을 확인하기 위해 주말 오전 11시와 오후 4시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오전 11시는 식사와 설거지와 같은 가사노동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이고 가구 구성원 모두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이 높아진다. 반면에 오후 4시는 상대적으로 가구 내 수행해야 하는 가사노동이 많지 않은 시간대이다. 이 시기에 어머니의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은 다른 시간대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다른 가구원, 특히 여자 자녀의 가사노동 행위자 비율이 높아진다. 이는 낮에 어머니의 가사노동을 여자 자녀가 대체해서 수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녀와 부모의 가사노동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자녀가 가사노동을 할 때 부모가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표 2a>는 자녀가 가사노동을 할 때 부모가 무엇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자녀가 가사노동을 할 때, 어머니는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버지는 여자 자녀가 가사노동을 할 때 일과 교제 및 여가활동을 많이 하고 남자 자녀가 가사노동을 할 때 아버지는 일, 가사노동, 교제 및 여가활동을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자녀가 가사노동을 할 때 어머니도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남자 자녀가 가사노동을 할 때, 아버지도 꽤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가사노동을 할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종류가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2b>는 자녀가 가사노동을 할 때 부모가 하는 가사노동을 중분류로 보여주고 있다. 자녀가 가사노동을 할 때 부모는 주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함께 수행하기 쉬운 쇼핑을 자녀와 함께 하거나 쇼핑을 하는 동안 집안에서 수행해야 하는 가사노동을 자녀에게 맡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종류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경우 남자 자녀가 가사노동을 할 때와 여자 자녀가 가사노동을 할 때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종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여자 자녀가 가사노동을 할 때는 청소 및 정리와 차량 관리, 그리고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을 했는데, 여자 자녀가 다른 가사노동을 하는 동안 혼자 수행하는 차량 관리를 하거나 상대적으로 함께 수행하기 쉬운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남자 자녀가 가사노동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자녀와 함께 수

행하기 쉬운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a> 자녀가 가사노동을 할 때 부모의 시간 사용 (단위: 분, %)

	여자 자녀 (N=455)		남자 자녀 (N=438)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수면	0.97(4.00)	1.82(7.55)	0.55(4.39)	0.57(4.57)
식사	1.12(4.64)	2.09(8.64)	0.75(6.03)	0.66(5.30)
개인 관리	1.60(6.64)	1.82(7.55)	0.64(5.12)	0.84(6.76)
일	2.57(10.64)	5.14(21.27)	1.21(9.69)	2.58(20.66)
학습	0.04(0.18)	0.24(1.00)	0.05(0.37)	0.00(0.00)
가사노동	10.79(44.64)	3.85(15.91)	5.73(45.89)	2.53(20.29)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0.29(1.18)	0.09(0.36)	0.71(5.67)	0.27(2.19)
참여 및 봉사활동	0.02(0.09)	0.13(0.55)	0(0.00)	0.14(1.10)
교제 및 여가활동	3.89(16.09)	5.69(23.55)	1.83(14.63)	2.85(22.85)
이동	2.64(10.91)	3.01(12.45)	0.84(6.76)	1.76(14.08)
기타	0.24(1.00)	0.29(1.18)	0.18(1.46)	0.27(2.19)
총합	24.18		12.49	

<표 2b> 자녀가 가사노동을 할 때 부모의 가사노동 사용 중분류 (단위: 분, %)

	여자 자녀 (N=455)		남자 자녀 (N=438)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음식준비	3.03(28.11)	0.31(8.00)	1.58(27.49)	0.39(15.32)
가정용 섬유·신발 관리	0.44(4.07)	0.07(1.71)	0.27(4.78)	0.07(2.70)
청소 및 정리	1.76(16.29)	0.48(12.57)	1.16(20.32)	0.55(21.62)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0(0.00)	0.04(1.14)	0.02(0.40)	0(0.00)
차량 관리	0.18(1.63)	0.33(8.57)	0(0.00)	0.02(0.90)
애완 동·식물 돌보기	0.15(1.43)	0.02(0.57)	0.14(2.39)	0.16(6.31)
상품 및 서비스 구입	5.19(48.07)	2.57(66.86)	2.47(43.03)	1.26(49.55)
기타 가정관리	0.04(0.41)	0.02(0.57)	0.09(1.59)	0.09(3.60)
가사노동	10.79	3.85	5.73	2.53

자녀가 가사노동을 할 때 혼자 한다는 응답은 51.4%이고 부모와만 하는 경우는 18.3%이다. 기타 아는 사람과만 하는 경우는 18.6%이며 부모와 하면서 기타 아는 사람과도 한 경우는 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자녀가 부모와 함께하면서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논해졌기 때문에(두경자 1996; 조혜정 1999),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사노동을 구분하였다.

<표 3> 자녀의 가사노동 시간과 행위자 가사노동 시간(부모와 같이 하는지 여부)
(단위: 분, %)

	여자 자녀	남자 자녀	t-test
부모와 함께하는 가사노동			
전체 평균 시간	7.34(26.60)	4.59(23.57)	
행위자 비율	12.75	9.36	
행위자 평균 시간	57.59(51.89)	49.02(61.96)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			
전체 평균 시간	16.84(32.81)	7.90(17.94)	***
행위자 비율	43.08	31.74	
행위자 평균 시간	39.08(40.40)	24.89(24.36)	***
N	455	438	

+ $p < .01$. * $p < .05$ ** $p < .01$ *** $p < .001$.

주: 전체 평균 시간은 가사노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평균 시간임. 행위자 비율은 가사노동을 한 번이라도 했다고 응답한 행위자의 비율이며, 행위자 평균 시간은 가사노동을 한 행위자가 수행한 가사노동의 평균 시간을 의미함. 괄호 안 수치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표 3>은 자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을 부모와 함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성별에 따른 수행 양에 차이가 있는지 t-test를 통해 통계적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남녀 모두 부모와 함께하는 가사노동보다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에게 가사노동 수행이 부정적 경험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여자 자녀가 남자 자녀보다 가사노동을 더 많은 시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선 연구와 일치한다(Cogle & Tasker 1982; Álvarez & Miles-Touya 2012; Manke et al. 1994; Morrow 1996).

부모와 함께하는 가사노동의 경우 남자 자녀와 여자 자녀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p<0.001$) 차이가 나타났다. 여자 자녀는 남자 자녀보다 약 두 배가량 더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했으며, 행위자만 봤을 때 그 차이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자 자녀가 유의미하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다른 변수가 통제된 경우에도 여전히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지 토빗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두 종류의 가사노동 : 누가 더 많이 하는가

<표 4>는 부모와 함께하는 가사노동과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 각각에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주말과 평일에 수행하는 가사노동 분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모형에서 주말 여부를 통제변수로 두었다.

Model A와 Model B는 부모와 가구의 특성이 포함된 모형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모와 함께하는 가사노동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은 여자 자녀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또한 부모와 함께하는 가사노동을 분석한 모형에서는 가구 유형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수가 아니었으나,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을 분석한 모형에서는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가 더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맞벌이 가구에서 부모가 수행하지 못하는 가사노동을 자녀가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교육수준에서 흥미있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부모와 같이하는 가사노동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영향을 준 반면에,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영향을 주었으며, 그 영향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났다. 부모와 함께하는 가사노동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 내 교육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껴 함께 가사노동을 하면서 가르쳐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이 적어지면서 자녀와 가사노동을 함께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 자녀의 가사노동 토빗 회귀 분석

	부모와 함께하는 가사노동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	
	Model A	Model B	Model C
성별 (기준: 여성)	-15.19 (12.53)	-19.94*** (4.23)	-9.42 (7.29)
가구 유형	-1.15 (15.50)	9.31+ (5.58)	16.26* (6.86)
연령	1.72 (6.39)	4.25+ (2.17)	4.40* (2.17)
건강	10.69 (7.71)	3.71 (2.57)	3.70 (2.56)
가구 소득	-3.70 (4.18)	1.27 (1.42)	1.16 (1.42)
어머니의 유급노동 시간	-0.04+ (0.25)	0.00 (0.01)	0.00 (0.01)
아버지의 유급노동 시간	-0.01 (0.02)	-0.00 (0.01)	-0.00 (0.01)
어머니의 교육수준	7.47* (3.76)	-0.44 (1.23)	-0.49 (1.22)
아버지의 교육수준	-2.98 (3.13)	-2.31* (1.03)	-2.28* (1.03)
어머니의 연령	-2.81 (2.43)	0.02 (0.81)	-0.09 (0.81)
아버지의 연령	0.49 (2.11)	0.24 (0.71)	0.30 (0.71)
10대 형제자매	7.34 (11.80)	-1.33 (4.01)	-0.97 (4.00)
10세 미만 형제자매	-16.38 (14.38)	2.78 (4.89)	2.86 (4.87)
성별*가구 유형			-15.61+ (8.89)
주말 여부	70.39*** (14.77)	13.75** (4.75)	13.96** (4.74)
Constant	-159.76 (128.12)	-69.91 (42.73)	-74.30+ (42.66)
Sigma	107.75	52.02	51.85
좌측절단/N	794/893	558/893	558/893

+ $p < .01$. * $p < .05$ ** $p < .01$ *** $p < .001$.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부모와 함께하는 가사노동의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16분 정도 차이로 작지는 않았다. 부모와 함께하는 가사노동도 여자 자녀가 남자 자녀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같은 성별 부모가 가사노동 하는 것을 보고 자녀가 모방학습하며(김경준·이윤석 2019),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자 자녀가 남자 자녀보다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연구대상이 대폭 늘어나면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서는 더 큰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Hu(2015)는 맞벌이 가구에서 어머니의 가사노동을 여자 자녀가 대체하게 된다고 말한다. Model C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구 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한 모형이다. 상호작용 변수는 통계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여자 자녀는 외벌이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에서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지만($Coef = 16.87, p = 0.05$), 남자 자녀는 가구 유형에 따라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양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 = 1.74, p = 0.79$).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자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을 부모와 같이하는 가사노동과 부모와 같이하지 않는 가사노동으로 구분하여, 이전 연구에서 자녀의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두 종류의 가사노동 각각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모와 함께하는 가사노동’ 보다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이 더 많이 이뤄진다. 한국 사회에서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은 부정적 경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여자 자녀가 남자 자녀보다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반면에, 부모와 함께하는 가사노동은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가사노동 수행이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에서 더 많았다. 이는 여자 자녀가 부정적인 경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은 아버지만 돈을 버는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에서 더 많이 이뤄지지만, 부모와 함께하는 가사노동은 가구 유형과 무관했다.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가 즐겁

지 않은 경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다. 넷째, 부모와 같이하지 않는 가사노동은 맞벌이 가구에서 여자 자녀가 더 많이 부담한다. 다섯째,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에게 할당하는 가사노동의 유형이 달랐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자녀는 온전한 가구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구 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이다. 따라서 자녀가 수행하는 가사노동이 부모와 함께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부모가 어떤 목적으로 가사노동을 시켰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Blair(1992)는 자녀의 가사노동을 부모의 목적에 따라 자녀의 책임감과 자율성 등의 개인적 자질의 개발을 의도한 ‘자녀 사회화’(child socialization) 관점과 가구 내 부족한 가사노동을 충당하는 목적으로 가사노동을 시키는 ‘노동 자원’(labor source) 관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White & Brinkerhoff(1981)는 두 목적의 가사노동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조사된 부모의 약 72%가 발달상의 이유로 자녀에게 가사노동을 할당한다고 응답했고, 약 23%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사노동을 도왔다고 응답하고 있다.

부모와 같이하는 가사노동은 두 세대 사이에 더 강한 애착을 가져오며(이윤석 2013) 자녀의 자아 존중감 발달(조혜정 1999)과 같은 교육적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가사노동을, 자녀의 교육적 사회화 관점에서 연구된 것처럼, 자녀의 규범 학습과 자립심 형성 등을 위해 부모가 함께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자녀가 혼자하는 가사노동은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이윤석 2013). Ross & Bird(1994)는 가사노동이 갖는 특징으로 ‘성취가 적고 단순하며 고립된 일’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이 때문에 우울감에 노출되기 쉽다고 말하는데, 자녀가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은 이러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사노동을 시키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는 주로 바빠서 함께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맡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모가 다른 일로 바쁘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함께하지 않고 자녀를 노동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와 함께하는 가사노동과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을 자녀에게 교육하기 위해 가사노동을 맡기는 것과 바쁘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 필요로 하는 가사노동을 충족하는 것으로 구분하면,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던 요소가 두 종류의 가사노동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목적으로 가사노동을 시키는 것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녀의 성별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올바른 인격 형성과 가족 공동문화 창조,

그리고 능력 의식의 발달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의 경우 앞선 연구와 같이 가사노동이 여자의 일이라는 인식 속에서 여자 자녀에게 더 많이 부과될 것이다. 이는 Model A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자녀와 함께하는 가사노동은 가구 내 가사노동 필요성과 함께 자녀를 교육하려는 목적으로도 수행된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와 같이 어머니가 수행할 수 있는 가사노동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부모와 함께 수행하지 않는 가사노동은 가구 내 필요로 하는 가사노동을 부모가 충당하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부과하는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맞벌이와 같이 부모가 가사노동을 덜 수행하게 되는 상황에서 자녀의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 장의 Model B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을 아버지나 남자 자녀가 아닌 여자 자녀에게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대체 역할은 자녀를 노동자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Model C의 상호작용 변수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다.

데이터의 특성에 의해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종단연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가구 유형이 바뀌었을 때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이 바뀌는지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녀가 가사노동을 부모와 함께하면 실제로 즐겁게 하고 교육적 목적이 이뤄지는지 현재의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부모와 함께하는지에 따라 자녀가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많은 연구에서 말해지고 있으나(이윤석 2013; 조혜정 1999; 두경자 1996), 자녀가 행위를 그 순간 즐겁게 인식을 했는지 자체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부모가 직접 가사노동을 같이하지 않아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자녀에게 가사노동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샘플의 수가 가진 한계가 존재한다. 평일에 부모와 함께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샘플의 수는 매우 적어(32명) 주말 여부에 따라 샘플을 나눠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샘플 수가 많을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우선, 기존 연구에서 가사노동은 자녀에게 교육적 영향(Penha-Lopes 2006; White & Brinkerhoff 1981)도 주지만, 노동 부담에 의한 스트레스(Larson & Richards 1994)나 학업 성취도 감소(김경희·임현정 2008) 같은 부정적 영향도 준다고 나타났다. 부모와 함께하

는지 여부에 따라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맥락을 통해 부분적으로 영향을 구분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가사노동 수행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경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성별 불평등과 어머니의 고용 여부가 부모와 함께하지 않는 가사노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통해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가사노동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전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자녀의 성별과 가구유형에 따라 가사노동을 더 많이 수행하게 되는 상황이 자녀에게 부정적 경험이며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 문헌

- 김경준·이윤석. 2019. “부모와 자녀의 가사노동 : 자녀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모방학습 (modeling)의 차이” 《한국인구학》 42(4): 01-25.
- 김경희·임현정. 2008. “3수준 다층모형을 활용한 교육맥락변인의 효과 분석” 《교육평가 연구》 21(3): 145-171.
- 두경자. 1996. “아동의 가사작업 참여도와 인성 특성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41-53.
- 손애리. 2000. “사례연구: 시간연구의 특성과 ‘생활시간조사’ 개발 과정.” 《조사연구》 1(1): 135-148.
- 이윤석. 2013. “Housework and Subjective Well-Being for Adolescents in Middle-Class Dual-Earner Families.” 《한국인구학》 36(1): 75-99.
- 조혜정. 1999. “청소년의 가사노동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논집》 2(-): 43-59.
- 차성란. 2001. “자녀의 가사노동 수행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7-31.
- Álvarez, B., and Miles-Touya, D. 2012.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s Housework Time in Spain.”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10: 299-318.
- Allen, J.P., C.W. Moore, G.P. Kuperminc, and K. Bell. 1998 “Attachment and Adolescent

- Psychologic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9: 1406-1419.
- Antill, J.K., J.J. Goodnow, G. Russell, and S. Cotton. 1996. “The Influence of Parents and Family Context on Children’s Involvement In Household Tasks.” *Sex Roles* 34: 215-236.
- Barber, B.K. 1994. “Cultural, Family, and Personal Contexts of Parent-adolescent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375-386.
- Bird and Ratcliff. 1990. “Children’s Participation in Family Tasks: Determinants of Mothers’ and Fathers’ Reports.” *Human Relations* 43(9): 865-884.
- Blair, S.L.J. 1992. “Children’s Participation in Household Labor: Child Socialization Versus the Need for Household Labor.” *Youth Adolescence* 21: 241.
- Call, K.T. 1996. “The Implications of Helpfulness for Possible Selves.” *Adolescents, Work, and Family*: 63-96.
- Call, K.T., J.T. Mortimer, and M.J. Shanahan. 1995 “Helpfulness and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 129-138.
- Cogle, F.L. and G.E. Tasker. 1982. “Children and Housework.” *Family Relations* 31: 395- 399.
- Cunningham, M. 2001. “Parental Influences on the Gendered Division of House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 184-203.
- Douthitt, R.A. 1991. “Children’s Time Use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Does Household Organization Matter?”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0(1): 40-51.
- Elder, G.H., & R.D. Conger. 2000. *Children of the Land: Adversity and Success in Rural America*.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lkind, D. 1981. *The Hurried Child: Growing up too Fast too Soon*. Da Capo Press.
- Eikind, D. 2001. *The Hurried Child: Growing up too Fast too Soon*. Cambridge: Perseus Publishing.
- Gager, T.G., T.M. Cooney, and K.T. Call. 1999 “The Effects of Family Characteristics and Time Use on Teenager’s Household Lab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982-994.
- Goodnow, J.J. 1988. “Children’s Household Work: Its Nature and Func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03: 5-26.
- Goodnow, J.J. and A. Burns. 1985. *Home and school: Child’s eye view*. Sydney, Australia: Allen & Unwin.
- Hedges, J.N. and J.K. Barnett. 1972. “Working Women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Tasks.” *Monthly Labor Review* 95: 9-14

- Hofferth, S.L. and J.F. Sandberg. 2001. "Changes in American Children's Time, 1981-1997."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6(0): 193-229.
- Hu, Y. 2015. "Gender and Children's Housework Time in China: Examining Behavior Modeling in Contex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7: 1126-1143.
- Larson, R. and M.H. Richards. 1994. *Divergent Realities: The Emotional Lives of Mothers, Fathers, and Adolescents*. New York: Basic Books.
- Lee, Y.S., B.Schneider, and L.J. Waite. 2003. "Children and Housework: Some Unanswered Questions." *Sociological studies of children and youth* 9: 105-126.
- Manke, B., B. Seery, A. Crouter, and S. McHale. 1994. "The Three Corners of Domestic Labor: Mothers', Fathers', and Children's Weekday and Weekend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57-668.
- Morrow, V. 1992. "A Sociological Study of the Economic Roles of Children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Birmingham and Cambridgeshire." Unpublished Ph.D. thesis. Univ. of Cambridge.
- Morrow, V. 1996. "Rethinking Childhood Dependency: Children's Contributions to the Domestic Economy." *The Sociological Review* 44: 58-77.
- Penha-Lopes, V. 2006 "'To Cook, Sew, to Be a Man': The Socialization for Competence and Black Men's Involvement in Housework" *Sex Roles* 54: 261-274.
- Propper, A.M. 1972.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Employment to Adolescent Roles, Activities, and Parent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Family* 34: 417-421.
- Ross, C.E. and C.E. Bird. 1994 "Sex Stratification and Health Lifestyle: Consequences for Men's and Women's Perceived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2): 161-178.
- Rubin, V. 1983. "Family Work Patterns and Community Resources: An Analysis of Children's Access to Support and Services Outside School." in Hayes, C.D. and S.B. Kamerman(eds.). *Children of Working Parents*.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 Smetana, J.G., C. Daddis, and S.S. Chuang, 2003. "Clean Your Room!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Adolescent-Parent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Middle-Class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 631-650.
- Smith, T.E. 1990. "Time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539-558.
- Suransky, P.V. 1982. *The Erosion of Childhood*.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hrall, C.A. 1978. "Who does What? Role Stereotyping, Children's Work, and Continuity

between Generations in the Household Division of labor.” *Human Relations* 31: 249-265.

Timmer, S.G., J. Eccles, and K. O’Brian. 1985. “How Children Use Time.” in F.T. Juster and F.P. Stafford(eds.). *Time, Goods and Well-being*.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353-382.

Warton, P.M. and J.J. Goodnow. 1991. “The Nature of Responsibility: Children’s Understanding of ‘Your Job’.” *Child Development* 62: 156-165.

White, L.K. and D.B. Brinkerhoff. 1981. “Children’s Work in the Family: Its Significance and Mean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3(4): 789-798.

Zick, C. and C. Allen. 1996. “The Impact of Parents’ Marital Status on the Time Adolescents Spend in Productive Activities.” *Family Relations* 45: 65-71.

Zill, N. and J.L. Peterson. 1982. “Learning to Do Things without Help.” in Loasa, L.M. and I.E. Sigel(eds.). *Families as Learning Environments for Children*. Plenum Press, New York.

<접수 2020.03.27; 수정 2020.05.01; 게재확정 2020.05.06>

Household Tasks that Children Do with or without Parents

Kyeong-Jun Kim

Yun-Suk Lee

In this paper, we divide children's housework time into household labor that children do with or without the parents and examine each of time on household tasks using the 2014 Korean Time Use Survey. We focus on children's sex and family earning types as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se times on housework. We find that when there are not parents, daughters and children in dual-earner parents do more household tasks than sons and those in male-breadwinner households respectively. But when children perform household chores together with parents, there are no statistical gender differences in amounts of time spent on housework by children. This study shows the significance of parents' presence in children's housework.

Key words: adolescent, housework, cooperation with parents, socialization, Korean Time Use Survey